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위한  
적극행정 표준강의안(적극행정의 기본 이해)



일편단심

진심가득

# 국민을 흔드는 적극행정

이심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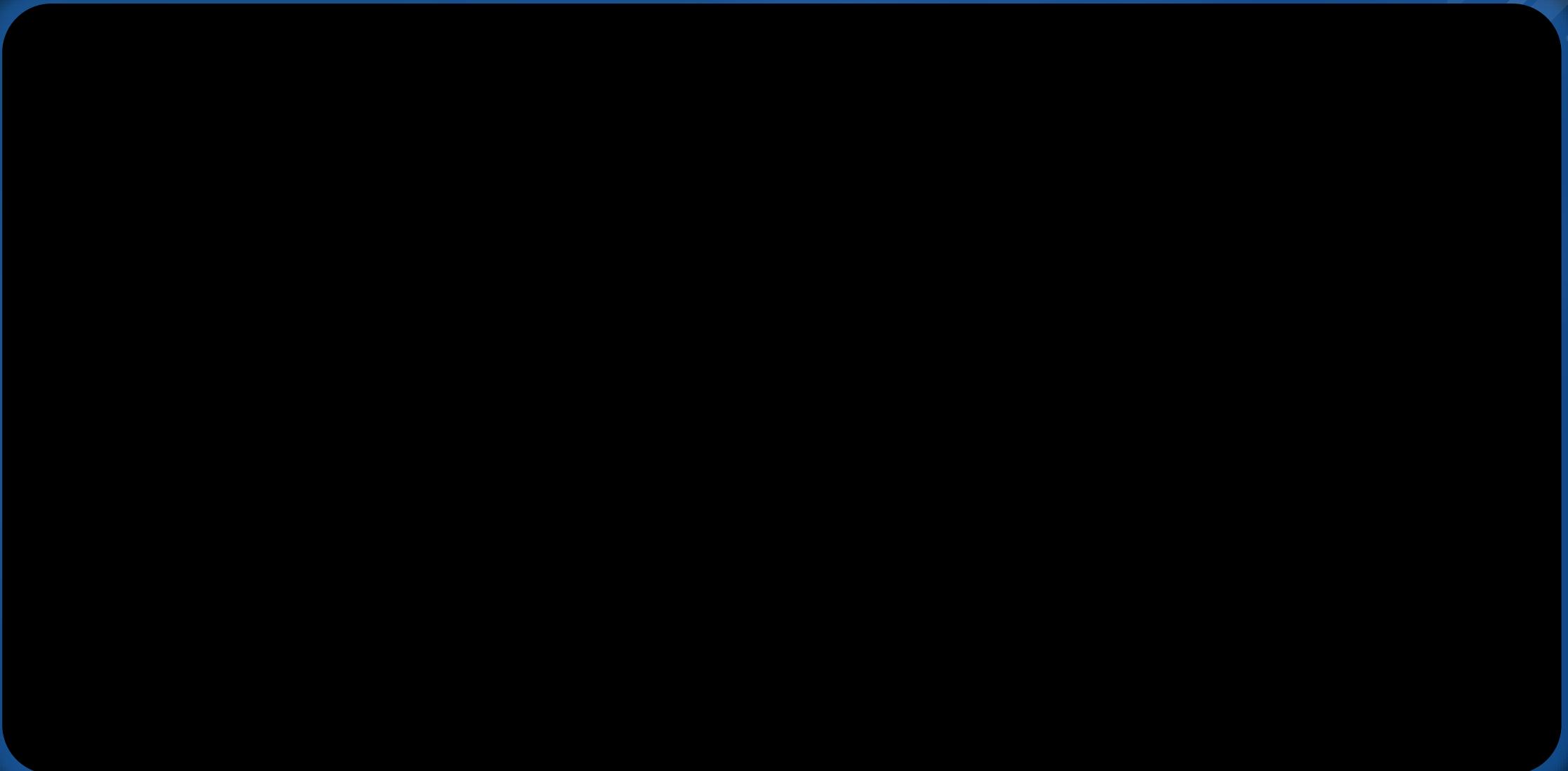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적극행정의 기본 이해

# 오프닝 영상



Intro.

# 우리는 왜 적극 행정을 하는가?

적극행정이  
무엇이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업무도 많은데  
무엇을 더 하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하려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바로 지금,  
**적극행정**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 적극행정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 적극행정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 적극행정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어떤 공무원 으로 인식되고 있나요?

한국언론

**우** 東亞日報

2019년 04월 27일 목요일 A03면 종합

2019년 04월 27일 토요일 A03면 종합

## “우리 소관 아닌데요” “전례가 없어요”… 공무원들 앵무새 답변



### ● “규제 자체보다 이를 지키려는 공무원이 더 문제”

우선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본 답변을 물어봤다. “그건 ○○ 법과 ○○지침 때문에 안 됩니다”(66.3%·이하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그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각각 56.1%)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34.7%)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12.2%) 등 책임회피형 답변이 뒤를 이었다.

### ● 나에게 공무원은 ‘통곡의 벽’

동아일보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에게 그들이 겪은 공무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물어봤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자신이 만났던 규제 관련 공무원을 ‘복불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떤 공무원을 만났느냐에 따라 사업의 합법과 불법 여부가 판가름 난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불복’”이라고 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소극행정으로 사업의 기회를 놓쳤다며 공무원을 ‘백태클’ ‘통곡의 벽’ ‘하들’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67.8%

“신산업에 대한 규제 자체보다 그 규제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더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의 기대 그 이상!

# 적극행정

2019.10.10 (목)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

오늘 우리의 주제는 ‘**적극행정**’입니다.

행정이 원래 ‘능동적 적극적 국가작용’인데, 거기에 또 ‘적극’을 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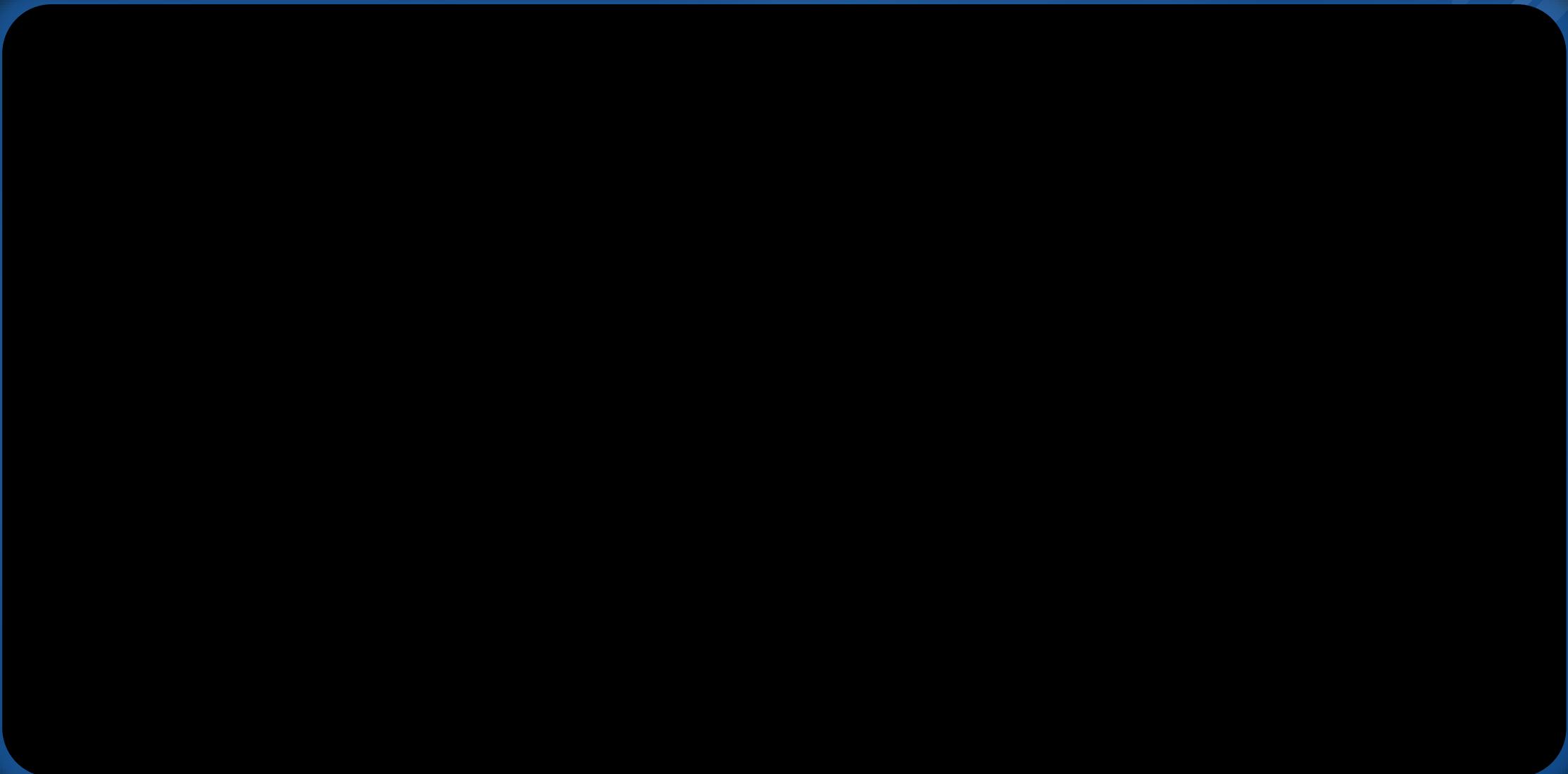
**동어반복입니다.** 동어반복은 원래 권장할 만한 어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일을 하는가,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 격려사**, 2019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 中

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 추진경과 및 국민응원 영상



## 적극행정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정부를 변화의 주체로 만드는 혁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



**대한민국의 적극행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